



원도심 여행 도시의 숨결을 따라서

부평 부평모두들(부평지하상가)

부평모두들은 세계 기네스북 기록에 올라 있다. 단일 면적 세계 최대 점포 수라는 별이다. 1,400여 개의 점포가 의류, 잡화, 전자기기,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품목을 채워져 있으며,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활기가 가득하다.

● 부평구 부평대로 69 일대

문학 문학산

해발 217m의 아담한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인천 도심이 한눈에 펼쳐지는 조망 명소다. 문학산성, 삼국시대 봉수대 등 역사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걷는 길마다 시간이 쌓여 있다.

● 미추홀구 문학동

남동구 인천대공원

세계철 내산책과 자전거 타기에 좋은 인천의 대표 녹지 공간이다. 수목이 우거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슴생태원, 정미원, 어린이동물원, 식물원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이어진다. 특히, 봄이면 산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봄맞이 명소로 유명하다. ● 남동구 정수동 산79 ☎ 032-466-7282

검단구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인천의 수도권권립지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생태테마 공간이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절별 꽃밭을 조성해 인천의 대표적인 꽃밭이 장소로 이름났다.

● 검단구 자연문화로 170

인천관광여행정보

월미바다열차

월미바다열차는 월미도에 새롭게 도입된 국내 최장 도심형 모노레일이다. 2019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월미도 6.1km 구간을 약 42분 동안 운행한다. 3층 건물 높이의 캐노피를 달리기에 월미도 경관과 함께 인천 내항, 서해, 인천대교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어 관광객들 입소문 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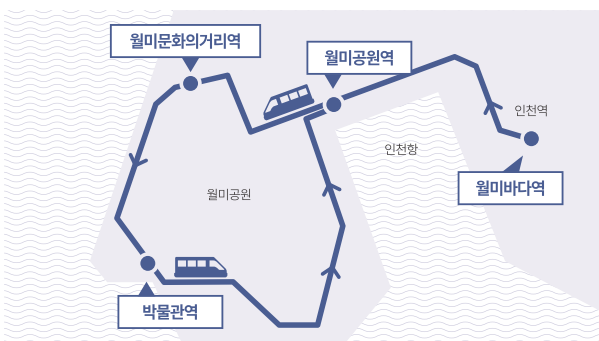
이용요금

구분	어른	노년·청소년	어린이	장애인·유가족
일반	평일 11,000원 단제 9,000원	8,000원 6,000원	7,000원 5,000원	6,000원 5,000원
	주말 14,000원 단제 12,000원	10,000원 8,000원	8,000원 6,000원	7,000원 6,000원
	인천 시민 8,000원 주말 7,000원	6,000원 5,000원	5,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재유	평일	* 평일 기준 20~50% 할인, 재유상품 이용 인원 10명일 인솔자 1명 무료 적용		

운영시간

구분	이용시간	비고
상수기 (4월~10월)	주말(금·토·일 및 공휴일) 10:00~19:00 주중(화~수목) 10:00~18:00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
비수기(11월~3월)	10:00~18:00	

운영노선



이용문의

☎ 032-460-7600 ● wolmiseatrain.or.kr

섬 여행 168개의 보물을 만나다

산시·모도

영종국제도시 삼죽항에서 배로 단 10분, 다리로도 이어진 산시·모도는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특별한 섬 여행지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거나 드라이브를 즐기 좋다.

덕적도

웅진해역의 대표 섬 덕적도는 트레킹과 해수욕, 바다낚시,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여행지다. 넓게 펼쳐진 해변과 울창한 숲길에 어우러져 섬 속에서 또 다른 계절을 만나는 듯한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굴업도

서해의 작은 섬 굴업도는 손때 묻지 않은 자연을 품은 백패커들의 성지다. 끝없이 펼쳐진 해변과 바다,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면, 별빛과 파도 소리가 아름다운 가장 순수한 섬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

대적작도

부아산 정상에 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섬들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썰물 때만 드러나는 신비로운 모래섬 '물동'은 대적작도의 백미로, 걸음을 옮길수록 바다가 그려내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바다 위에 흩어진 섬들은 저마다의 풍경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가까운 길 위의 소박한 섬에서부터 서해 끝자락의 깊은 바다까지, 168개의 보물 같은 섬이 여행자의 발길을 기다린다.

승봉도

봉황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상에서 이름 붙은 승봉도는 해변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서해의 보석 같은 섬이다. 굽이진 해안길을 따라 트레킹을 즐기며, 바람과 파도가 빛어낸 환상적인 풍경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연평도

꽃게의 고향으로 유명한 연평도는 풍요로운 어장과 고즈넉한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섬이다. 동시에 연평해전과 포격 사건의 현장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간이기도 하다.

백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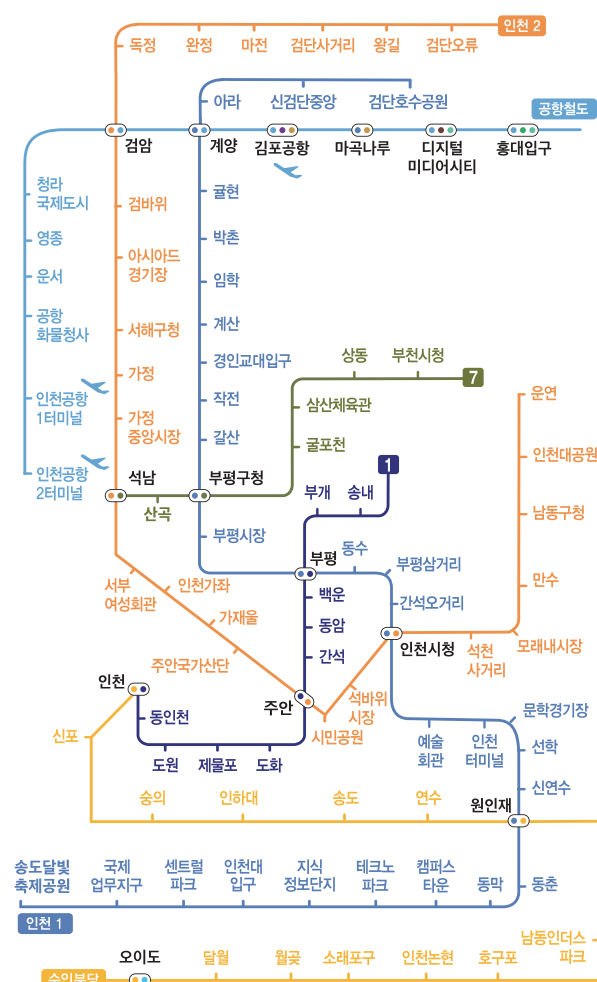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두무진과 할조로처럼 끝없는 바다는 두무진과 할조로처럼 끝없는 바다는 두무진과 할조로처럼 끝없는 바다.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면, 별빛과 파도 소리가 아름다운 가장 순수한 섬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

대청도·소청도

넓은 사구 지형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대청도는 서해의 절경을 품은 섬이다. 바로 옆에 자리한 소청도는 등대와 기암괴석이 빛어낸 고요한 풍경이 매력적이다. 두 섬을 함께 걷다 보면, 자연과 시간이 빛어낸 특별한 여정을 만날 수 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교통카드 한 장이면 된다. 지하철, 버스는 환승 할인까지 된다. 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환승해야 한다. (오전 9시~오후 7시에는 1시간 이내 환승 할인)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발권해 사용하는 1회용 카드다.(카드보증금 500원 포함) 도착 지하철역에서 카드반납기에 카드를 넣으면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지하철, 택시, 공항버스 및 수도권 버스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주요 편의점, 지하철, 무인택배보관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 돈을 충전해서 이용할 수 있다.



개항장 근대로 돌아가는 시간여행

1883년 개항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인천 개항장은 근대로 향하는 시간여행의 출발점이다. 호텔, 전시장, 공원, 문화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면 한 세기 전의 풍경이 눈 앞에 되살아난다.

대불호텔-생활사전시관

대불호텔전시관은 1888년, 인천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을 복원한 공간이다. 개항기 여행자들의 호텔 이용 문화와 건축 양식을 담고 있다. 생활사전시관은 제물포구 지역의 근현대 생활사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대불호텔전시관 ● 제물포구 신포로23번길 101
생활사전시관 ● 제물포구 신포로23번길 97 ☎ 032-766-2202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개항기 근대건축물의 구조와 특징을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실제 자재와 축소 모형, 터치형 콘텐츠 등을 통해 개항장의 건축사를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 제물포구 신포로23번길 77
☎ 032-762-3089

자유공원

한국 최초의 서식구 근대 공원으로, 개항기 외국인 거주지였던 언덕 위에 조성돼 인천항과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맥아더 장군 동상과 한미수교 100주년기념탑 등이 있어 역사와 자연 경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명소다.

● 제물포구 제물랑로232번길 46

인천시민애집

1913년 지어진 일본식 가옥에서 시작해 인천시장 관사, 역사자료관을 거쳐 2021년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북 토크와 전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개항기 외국인 거주지의 흔적과 인천을 내려다보는 전망이 특징이다.

● 제물포구 신포로39번길 74
☎ 032-766-0261

누들플랫폼

파장면, 냉면, 쫄면 등 면을 테마로 한 복합 전시공간으로, 개항기 인천의 식문화와 국수 산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 체험, 포토존이 어우러진 이색 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36
☎ 032-766-3770

UNIQUE POINTS 오직 여기에서만

인천개항장 국가유산 여행

근대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개항장 거리를 따라 발하를 아래 특별한 산책이 펼쳐진다. 개항 이후 인천이 품어온 건축과 문화유산들이 아롱과 함께 빛나며, 문화재 개발과 공원, 야사지도 함께 열린다.

●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일대 ☎ 매년 6월, 9월

파장면박물관

1930년대 중국요릿집 '궁화춘'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박물관으로, 파장면의 유래와 변천 과정을 전시한다. 음식과 인간의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으며, 개항기 인천의 식문화와 중국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 제물포구 자이나타운로 56-14 ☎ 032-773-9812

하얀 중창이 빛나는 특별한 한 그릇

"파장면은 집다"는 편찬을 깨는 맛, 자이나타운의 하얀 파장은 인공 창가들이 없는 전통 중창으로 만들어진다. 담백하면서도 진한 풍미, 면과 어우러진 순간 입안 가득 특별한 여운을 남긴다.

삼국지·초한지 벽화거리

자이나타운 중심 계단을 따라 삼국지와 초한지의 장면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벽화가 펼쳐진다. 유비, 관우, 황유, 유방 등 익숙한 인물들을 따라 걸으며, 고전 속 이야기와 함께 하는 이색 테마길을 경험할 수 있다. 화려한 색감과 디테일 덕분에 사진 명소로도 인기다.

삼국지 벽화거리 ● 제물포구 자이나타운로51번길 일원

초한지 벽화거리 ● 제물포구 북성동3가 4-1

차이나타운 이국의 풍경을 걷다

붉은 등이 켜진 골목과 이야기로 물든 벽화를 따라 걷다 보면, 낯선 듯 특별한 풍경이 눈에 담긴다. 면 한 그릇의 맛과 색, 언덕 위에 겹겹이 쌓인 풍경이 이국의 여정을 완성한다.

차이나타운 황제의 계단

차이나타운 언덕길에 조성된 체험형 테마 계단으로, 총 5단 구성은 각각 왕의 길, 황제의 일행, 무릉도원의 여행, 만리장성의 여정, 도화원의 복숭아를 주제로 한다. 계단과 벽면에는 중국 전통 문양과 상징물이 장식돼 있다.

● 제물포구 자유공원사로 10 일원

UNIQUE POINTS 오직 여기에서만

상상플랫폼

옛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와 공연, 체험이 함께 이뤄진 문화와 일상이 어우러진다. 바다와 마주한 공간 속 카페가 마련돼 오래 머물며 즐기게 한다.

송월동동화마을(트릭아트 스트리)

송월동동화마을은 피노키오, 백설공주 등 동화 속 장면이 벽화로 펼쳐진 골목마을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포토 명소다. 마을 안에 위치한 트릭아트 스트리는 착시 효과를 활용한 전시와 가를 미로, 인터랙티브 체험 등이 가능한 실내 체험 공간이다.

● 제물포구 송월동3가 17-11 ☎ 032-761-2631(트릭아트 스트리)

월미바다열차

인천 월미도를 순환하는 국내 최장 도심형 관광모노레일이다. 총 운영거리 6.1km이며, 월미도를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2분 정도 소요된다. 월미문화의거리, 월미공원, 한국이민사박물관 등을 잇는 관광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 제물포구 월미로 6 ☎ 032-450-7600

월미테마파크

다양한 놀이기구와 LED 조명이 어우러진 바다 열 테마파크다. 밤에는 음악과 조명이 연출하는 환상적인 분위기 덕분에 데이트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 제물포구 월미문화로 81
☎ 032-764-0642(월미도 반영화)

월미공원(한국전쟁정원)

월미산 자락을 따라 걷다 보면 조선시대 양식을 재현한 전통정원이 시선을 끈다. 고즈넉한 정원과 숲속길, 전통문화 체험공간까지 어우러져 천천히 걷기 좋은 공간이다.

● 제물포구 월미로 131-22 ☎ 032-765-4133(월미공원안내소)

월미도 감성이 머무는 바닷길

바닷바람이 스치는 길 위에서, 달빛과 불빛이 어우러진 풍경이 천천히 펼쳐진다. 우람선의 물결과 공원의 고요가 겹쳐지며, 월미도는 머무는 순간마다 다른 감성을 선사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항의 숨은 역사와 해양 문화의 의미를 담아낸 국내 최대 해양 전문 박물관으로, 전시와 체험을 통해 바다와 함께한 인천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 제물포구 월미로 294
☎ 032-620-1095

UNIQUE POINTS 오직 여기에서만

월미도 유람선-카페리

물치도(작약도)를 거쳐 정서진으로 향하는 유람선이 월미도 선착장에서 출발한다. 인천 앞바다를 따라 천천히 나아가며, 바다 위에서 도시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월미도를 향하는 유람선도 함께 운영해 인천항과 서해섬들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 유람선 외에도 영동도 구불머리를 오가는 카페리가 함께 운항된다.

● 제물포구 월미문화로 36(월미도 선착장)

사일로 벽화

곡물 저장고 외벽에 그려진 아파트 22층 규모의 대형 벽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로 미디어스퀘어 등재된 명소로 밤에는 미디어파사드 조명이 더해져 인산향의 밤을 더욱 환상적으로 수놓는다.

● 제물포구 북성동 1가

송도컨벤시아

태백산맥을 형상화한 지붕이 인상적인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중심 시설로, 다양한 박람회와 행사들이 열리는 송도의 랜드마크다. 독특한 건축미와 주변의 공원을 즐기며 여유롭게 도심 속 산책 코스로도 제격이다.

● 연수구 센트럴로 123
☎ 032-210-1114

송도센트럴파크

송도센트럴파크는 바다를 품어와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공원이다. 국내의 인기 브랜드는 물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스포츠와 식음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송도국제도시 대표 소용 복합 공간이다. 넓은 실내와 공간과 편안한 동선으로 하루 코스로 둘러보기 좋다.

●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국립세계문화박물관

세계의 문자와 기록문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문자 전문 박물관이다. 상설 전시부터 어린이 체험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돼 있어, 문자의 기원과 진화를 흥미롭게 마주할 수 있다.

● 연수구 센트럴로 217
☎ 032-290-2000

아트센터인천

바다를 마주한 공연장으로, 세계적인 음향 시설과 개방감 있는 구조가 인상적이다. 클래식부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리며, 건물 곳곳에서 성채한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 032-453-7700

통비치파크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의 서쪽 끝에 위치한 경관형 해변 공원으로, 도시의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해 질 무렵이면 붉은 노을이 웅장한 인천대교와 맞닿아 어우러진다.

● 연수구 랜드마크로 194

UNIQUE POINTS 오직 여기에서만

현대프리미엄아일랜드 송도

국내의 인기 브랜드는 물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스포츠와 식음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송도국제도시 대표 소용 복합 공간이다. 넓은 실내와 공간과 편안한 동선으로 하루 코스로 둘러보기 좋다.

●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23

트라폴스트리트

A-D동까지 이어진 스트리트형 쇼핑몰로, 패션과 미식, 여가와 전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다. 산책하듯 쇼핑을 즐기며 송도국제도시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 연수구 송도국제대로161번길 33-1

